

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

— 공지영과 김인숙의 소설을 대상으로

김은하*

차례

1. 머리말—여성/386 세대
2. 청춘의 소환, 성별화된 기억
3. 희생적 통과제의와 신성한 히스테리: 공지영
4. 훼손당한 젊음과 포르노적 열정: 김인숙
5. 결론

국문초록

성장을 개인의 사회성과 표현의 자율적인 형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기형성의 과정이라 했을 때, 여성 386 세대들은 여성 혹은 여류라는 집단의 범주 혹은 성의 규범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개체로서 성숙의 통과제의를 시도했던 교양 주체들이 분명하다. 여성 386 세대들의 후일담 소설은 혁명이 좌절된 뒤 비로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성별에 눈 뜬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문제적이다. 그것은 과거에 대한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소환의 형식이 되면서 성별화된 기억의 양상을 띤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사회와 여성, 의식과 무의식, 계몽과 욕망, 이성과 감성, 주체와 사물, 정신과 몸, 금욕과 탕진, 중심과 주변, 광장과 밀실 등 세상에 대한 견고한 이분법 위에 구축된 386 세대의 정치 철학이 심문에 부쳐진다. 여성 386들의 후일담은 혁명의 시간을 감상적으로 추억하기보다, 좀더 신랄한 해부의 성격을 띤 가능성도 높다.

특히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진보주의 작가 혹은 386 여성작가로 꼽히는 공지영과 김인숙의 작품에서 매우 이질적이면서 유사한 측면들이 발견된다는 점에

* 경희대 강사

주목했다. 그것은 ‘속’됨에 대한 이질적 태도이다. 공지영의 소설은 속됨에 대한 극도의 콤플렉스 혹은 성스러움에 대한 선망을, 김인숙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히스테리컬한 열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사람의 후일담 소설은 공히 성스러움의 압력에 짓눌린 자들의 피해의식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현된 결과물이다. 공지영의 후일담은 386 세대에게 순정함과 진정성을 광휘를 부여해 역사를 자기의 추억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르시시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여기에는 역사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열망이 깔려 있다. 중심을 열망하는 주변의 글쓰기가 공지영의 문학이다. 반면 김인숙은 80년대를 통과하면서 원초적인 자기를 잃어버린 혹은 욕망을 짓눌린 인물을 통해 혁명의 위선과 억압을 공격하고 들추는 퇴폐의 열정을 선보이며 80년대가 억누른 욕망을 소환한다.

핵심어 : 후일담, 통과제의, 성, 속, 386 세대, 여성 작가, 성별, 여성문학

1. 머리말—여성/386 세대

한국문학사에서 1990년대는 그 어느 시기보다 여성작가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여성의 경험이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한 때이다. 그러나 여성작가들의 문단 진출의 의미와 글쓰기의 공과는 본래 성숙한 남성의 장르인 소설이 여성화, ‘사회(privatization)’ 되고 있다는 우려가 힘을 얻으면서 편벽되게 규정되었다. 이를 테면, 남성/여성, 공적 영역/사적 영역, 정치/일상, 계몽/욕망, 의식/무의식 등 이분법에서 전자와 후자가 각기 80년대 문학과 90년대 문학의 특질로 규정됨으로써, 여성의 목소리를 엄숙주의적인 거대담론을 해체하는 긍정적인 징후로 진단하던 소설이 ‘연성화’되는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진단하든지 간에, 한국문학을 설명해오던 지배적 틀은 더욱 강고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여성 후일담 소설은 본격적으로 조망되거나 정당한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후일담 소설은 80년대 혁명 세대들의 치욕적 현존에 관한 자기고백적 보고서로

서 90년대 이후 한국 문학에 대한 기록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두드러진 사건인 탓에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공지영을 제외하고 김인숙, 정지아, 권여선, 김형경, 이남희, 공선옥, 조선희, 오수연, 박형숙, 전경린, 정미경 등 386 세대¹⁾ 여성작가들의 소설은 본격적으로 후일담 문학의 범주로 다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기실 90년대 여성문학이 80년대와 맺고 있는 점점 혹은 단절의 지점은 섬세하게 포착되지 못했으며 후일담 문학의 젠더화 양상 혹은 여성문학적 성격 역시 간과되었다.

여성 386 세대들은 공식적 기록 혹은 기억 속에 제 이름을 올리지 못한 부재 혹은 결핍의 기호들이다. 386 세대의 대표 작가로 방현석, 김영하, 김소진 등 남성작가가 거론되고, ‘여성 386’이라는 지칭이 부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386’ 혁명 세대의 주체는 청년-남성 지식인으로 기억되어 왔다.²⁾ 그러나 기실 여성 386들은 본격적으로 정치의 세계에 입문함으로써 자기 교양화를 시도한 여성 지식인 집단 혹은 정치적으로 각성된 최초의 여성 세대이다. 그간 한국 현대사 속에서 다수의 여성들은 사적 영역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광장의 대열에 설 수조차 없었다. 사일구 혁명의 경우 소수의 여성들이 혁명에 참여했지만, 소녀 진영숙의 유서가 소년 김주열의 것으로 바뀌치기 된 것처럼³⁾ 혁명은 여성에게 근대 국가

1) ‘386’은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에 다니고 1990년대에 30대였던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서, 현대사의 어떤 세대보다 대규모의 집단으로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혁명세대로도 불린다.

2) ‘386 세대’라는 용어는 마치 고유명사처럼 사용될 정도로, 1980년대 학생운동의 경험은 한 세대를 특징짓는 공동의 경험과 정서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학생운동의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강한 정치적 자의식, 역사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 집단주의적 문화에 의한 정치적 자의식, 역사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 집단주의적 문화에 의한 공동체적 연대감 등이 세대적 ‘우리 정서’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 이희영, 『한국 80년대 세대의 초상화: 독일 68세대와의 비교』, 『1980년대, 혁명의 시대』, 이해영 저, 새로운 세상, 1999.

3) 김주현, 『의거와 혁명 사이, 잊혀진 여성의 서사들』, 『제3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4·19 혁명과 여성』, 한국여성문학학회 외, 2010. 4. 17, 40쪽.

의 국민-시민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지 못했다. 혁명은 비록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 할지라도 사회적 삶의 내밀한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성역할을 해체하지 못했다. 특히 여성들의 혁명 참여는 여성들의 지위를 높이거나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로 이어지지 못했다. 여성은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온전히 주체 위치를 획득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혁명은 여성들을 들러리 혹은 희생자로 삼기에 완전하지 못한, 즉 미완의 혹은 실패한 기억으로 남고 만다. 여성의 공적인 자유와 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80년대부터다. 그러나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경우도, 혁명의 추억 혹은 영광 속에서 여성의 존재는 배제되거나 지워져 왔다.⁴⁾

혁명은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여성을 배제해 버리기조차 한다. 혁명은 늘상 여성에 관한 의제를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혁명은 여성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이다. 여성이 겪는 고통은 늘 민주주의, 계급 해방, 민족 자주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며, 여성 혹은 여성성은 남녀 모두에게 저항적 주체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 벗어나야 할 두려움 혹은

4) 오히려 성공한 혁명은 젠더 관계를 엄격하게 재질서화하기도 한다. 이를 테면, 사일구를 기점으로, 해방과 6·25로 전후 와해된 젠더 관계는 실질적·상징적으로 재편성된다. 50년대라는 혼돈과 매혹의 시절에 등장한 ‘아프레 걸’들은 자신의 육체와 감각을 통해 실존의 자유를 쟁취하려 하지만 사일구 혁명을 계기로 실존적 모험을 방종한 자유로 선언하고 처벌하거나 주검으로 사라져 버림으로써 근대 국가의 시민들이 부르는 합창의 대열에 서지 못한다. 정연희의 『목마른 나무들』(63, 여원사)에서 당돌한 ‘아프레 걸’인 서주연은 독재에 맞선 연인의 희생적·영웅적 주검 앞에서 자신의 실존적 모험을 파오라 이름붙이고 부끄러움 가득한 눈물을 흘리며 성숙의 문지방을 넘는다. 그녀에게는 여성-모성성의 새로운 규범이 주어진다. 또한 강신재의 『오늘과 내일』(1967, 을유문화사)에서 여대생 윤미는 혁명의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각성되어 시위에 가담해 결국 다리를 잃는다. 그러나 마치 혁명 국가에서 여성 정치주체들의 기억이 말소된 데 대한 은유인 양 윤미는 자살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의 시민이 되지 못한다.

유희과 동일시된다. 특히, 1980년대는 광주 학살의 광기와 함께 시작된 탓에 학생운동은 비장한 저항운동의 형태를 띠어 청년들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불어 넣었을 뿐 아니라 ‘유격전’에 비근할만한 폭력적 양상을 띠었다.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 자유롭고 강인한 남성이 혁명의 주체 세력이 되었으며, 학생운동조직은 가부장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넘어서지 못했다.⁵⁾ 이렇듯 절박한 정치 상황은 80년대 세대에게 자기에 관한 성찰적 응시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들은 자기의 나약함과 안일함에 대한 혹독한 자기 반성은 허락받았지만 공적 대의를 앞세운 탓에 사적인 욕망과 고뇌의 침묵을 명령받았다.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혁명의 대의와, 개인의 취향 혹은 욕망의 괴리 속에서 깊은 분열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지만⁶⁾ 이를 은닉하는 데 익숙하다. 뒤에서 살펴볼겠지만, 특히 80년대 혁명은 유난히 도덕화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육체, 감각, 사생활 등은 운동의 신성한 대의를 위협하거나 해칠 수 있는 세속적 욕망으로 분류됨으로써 감시 혹은 억압의 대상

5) 80년대 운동의 남성성은 학생운동 조직이 가부장적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전희경에 따르면 학생운동 진영에게는 여타의 정치세력과 달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런 ‘신뢰’는 학생운동 일반에 가상적으로 기대되어졌지만, 기실 학생운동 진영 내의 성차별주의는 ‘진보’와 ‘대동단결’의 이름으로 은폐되고 무마되어 온 악랄한 폐습에 속한다. 이는 대학사회 또한 기존 사회의 가부장제를 그대로 체현하고 있으며, 이런 성차별주의를 물질적인 실재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히 ‘이데올로기’로 생각하고, 여성운동을 암묵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진 소수 여성들의 문제로 취급하게 한다. 또한 구체적으로 학생운동 조직 내에서 성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운동권 보호주의라는 명분에 가로막혀 공론화되지 못해 왔다. 전희경, 『여성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2-학생운동의 감추어진 일상문화』, 이재원 외 지음, 이후, 1998, 100쪽.

6) 시인 진은영은 80년대의 민중시에 공감했지만,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쓸 수 없었다며 사회참여와 참여시(취향과 감각)의 분열에 대해 고백한 바 있는데, 이는 80년대 세대가 광장과 밀실의 불일치 혹은 이념과 감수성의 극심한 분열을 겪었다는 점에서 개인의 특수한 경험으로 규정해 버리기 어렵다. 진은영, 『감각적인 것의 분배: 2000년대의 시에 대하여』, 『창작과비평』, 2008. 12, 69쪽.

이 되었기 때문에, 성별은 언어화되거나 사유될 수 없는 어둠의 대륙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렇듯 80년대 운동 담론에서 여성의제는 배제되어 버린 탓에 80년대 운동조직의 남성성, 여성의 주변화는 본격적으로 성찰되지 않았으며 80년대 여학생들은 자신의 존재론적 뿌리인 성별에 대해 그 어떤 세대보다 무지하거나 심지어 허위적이었다. 그러나 성장을 개인의 사회성과 표현의 자율적인 형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기형성의 과정이라 했을 때, 이들은 여성 혹은 여류라는 집단의 범주 혹은 성의 규범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개체로서 성숙의 통과제의를 시도했던 교양 주체들이 분명하다. 이들은 여성이 성장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머니의 일을 배우기 위한 느릿하고 예견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공간에 대한 불안한 탐색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세대 간의 연속성을 박탈하는 과정에서 새롭고 불안을 조성하는 힘이 전대미문의 이동성을 강요하면서 청춘의 모험이 시작되는 것처럼⁷⁾ 80년대 여성들은 더 이상 전범이 없이 혹은 전범을 극복하며 성장의 길을 가야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등장했다. 여성들의 새로운 수업 시대는 사회에 대한 책임을 깨닫거나 정치의 세계에 입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는 비록 의식적인 언어로 표명되지는 않았지만 386 세대들의 혁명 참여 속에 여성주의적 동기가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⁸⁾ 비록 혁명의 프레이즈 속에 ‘여성’이 빠져 있

7) 프랑코 모레티 저, 성은애 옮김, 『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28쪽.

8) 386 세대 여성들은 경제개발과 한국인의 유난한 교육열 탓에 고등 교육의 혜택을 받았지만,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에서 성차별 이데올로기에 억눌렸기 때문에 이들의 운동 참여는 가족과의 지독한 갈등을 야기했을 것이다. 한 386세대 여학생이 엠티를 통해 이루어진 조직활동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어머니와 갈등하는 장면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너는 모든 걸 네 뜻 하나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네 뜻과는 상관없이 네게 주어진 것들도 많은 거란다. 넌 여자야. 여자가 그렇게 집 밖에 나돌아 다니는 것은 좋은 게 아냐. 여자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MT만 해도 그래. 여자는 그렇게 한테서 함부로 자는 게 아냐.” “엄마 난 여자야. 하지만 대부분의 여자가 살 듯이 그렇

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성규범에 대한 전복을 시도하며 ‘인간’이 되고자 한 첫 세대이다.⁹⁾

386 여성 세대들에게 90년대 이후의 현실은 아마도 공중에 붕 뜬 듯한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이들은 혁명에서 실패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여성성과 몹시도 복잡한 갈등을 치룬 채 성장의 시간을 통과해 왔기 때문이다. 혁명의 기억이 이들에게 남긴 상처는 이중적이다. 혁명은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이들의 젊음은 상실감과 상처로 얼룩져 있다. 실존적 삶에 불가해한 모순과 균열을 남겼기 때문에 이들은 과거의 기억에 붙들려 있다. 386 세대들에게 80년대의 역사적 체험은 언제라도 예술과 일상 속에 호출될 수 있는 무의식의 지층을 이룬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80년대가 전두환 정권 하에서 기존체제에 대한 저항의 극한까지 가리만큼 비장한 시기이자, 운동의 이념이 저항성의 내면화 혹은 도덕화의 강제를 띤 까닭과 관련이 있다.¹⁰⁾ 그러나 혁명은 여성들에게 더 강렬한 기억 혹은

게 살 수는 없어. 그러기 싫어.” “다시 말하지만, 난 내가 여자로서 평범하게 살게 되길 바랄 뿐이다.” “엄마는 지금 그럭저럭 대학 나와서, 돈 잘 벌고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남자한테 시집 잘 가는 그런 걸 말하는 거지?” (“저는 오직 인간일 뿐입니다., 『386세대, 그 빛과 그늘』, 진정, 김명희, 조두현 외, 문학사상사, 2003, 242쪽)

9) “우리 세대에서는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남학생들 또한 나를 여학생이라는 의식 없이 그저 친구로서 대해 준다고 느끼고 있었다. 나도 그들과 무슨 일이건 함께 하려고 했다. 술자리에도 합석해 마시지 않는 술이라도 받아서 함께 술잔을 부딪쳤고, 어깨동무를 하고 <선구자>를 불렀다. 또 MT에도 같이 가 이야기를 하며 밤을 새우기도 했다.” (“대학에 와서 눈뜬 여성문제, 앞의 책, 247쪽)

10) 김원은 자신의 80년대를 회고하면서, 언어, 즉 표현의 능력을 초과하는 80년대적인 것을 ‘광기의 시대’ 혹은 ‘광기어린 사람들’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또 하나의 광기는 바로 우리 자신이었다. 아니 우리라고 부르는 것이 지금에 와서는 다소 어폐가 있을런 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때 우리들은 얼마간은 하나만을 생각하고, 정신과 육체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운동’이라는 것에 집중시켰다는 점이다. 지난한 논쟁과 투쟁 그리고 내적인 갈등, 혼란 등은 그 시대에 우리 주변에 항상 맴돌던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맹아였다.” 김원,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1980년대 한국 대학생의

에도할 수 없는 상실의 흔적일 수 있다. 386 세대 남성들의 상당수가 운동의 이력을 영광의 훈장 삼아 현실에 편입된 것과 달리 386 세대 여성들은 80년대에도 90년대 이후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붕 뜬 시간 속을 산다. 이천년대 들어 남성작가들의 후일담 소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데 비해, 『엄마의 집』(전경린, 2008) 『즐거운 나의 집』(공지영, 2008) 『내가 가장 예뻐했을 때』(공선옥, 2010), 권여선의 근작들 등 다수의 작품은 후일담에 속한다. 이들의 후일담은 좌절한 성숙의 꿈을 실현하거나 시간의 허물어진 귀퉁이를 부여잡고 자기 존재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되찾으려 한다.

2. 청춘의 소환, 성별화된 기억

‘후일담 소설’은 혁명에 실패한 세대의 불행한 의식을 담은 ‘트라우마’¹¹⁾ 문학이다. 386 트라우마는 주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왜소한 개인이 느끼는 충격과 고통 그리고 고뇌의 증거이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이렇듯 주체에게 주어진 충격을 주체의 우월한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데에서 숭고한 감정이 발생하며, 이는 인간 이성의 우월성을 확인해주는 계몽 기획의 일부가 된다. 이를 증명하듯 80년대 세대들이 광주 사진전을 통해 대리 체험한 트라우마는 공동체에 대한 개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이후, 1999, 12쪽.

11) 트라우마는 전쟁이나 재앙, 사고 등과 같이 극단적 충격을 넣음으로써 정상적인 의식으로부터 분열되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환각, 악몽, 플래시백(flashback) 등의 형태로 돌발적으로 재귀하는 체험의 양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트라우마의 폭력성은 세계질서에는 의미가 있다는 기본적인 가정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본원적 자기 방어 체계를 압도하며 생존자의 건강하게 통합되어 있던 기능들을 뿔뿔이 잘라내 버린다.

인의 책임과 윤리를 일깨우며 청년 주체의 교양화와 도덕적 성숙의 형식으로서 운동에 대한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역사에 대한 죄책감은 도덕 감정의 핵심적 요소로서 386 세대들을 폭발적인 혁명적 에너지의 집단으로 정체화했다. 그러나 90년대 후일담 문학에서 386 세대들의 주된 감성인 죄책감과 그것의 다른 표현인 불의감은 상실과 우울의 정서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후일담 문학은 기실 감정이 극도로 제거된 건조한 상태, 대상에 대한 감정적 투자를 줄임으로써 주체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방어적 감정과 달리 반복적으로 충격을 체험함으로써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즉 세계에 대한 의식적 해석이나 저항의 가능성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후일담 문학은 잃어버린 총체성을 다시 거머쥐려는 감정의 기획 혹은 기억의 정치학이다.

자책과 수치심은 후일담 문학의 주된 정서적 자질이다. 사회학자 김홍중에 의하면, 이렇듯 생존이 부끄러움이 되는 감수성은 좋은 삶과 올바른 삶을 규정하는 가치의 체계이자 도덕적 이상으로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삶의 미덕으로 삼는 태도, 즉 ‘진정성(眞正性, authenticity)’의 증거이다.¹²⁾ 이는 386 세대가 운동에 펼쳐 일어난 계기가 광주 사진전이 불러일으킨 도덕 감정 때문이라는 데서 드러난다. 도덕 감정은 ‘불의감’을 구성하는 핵심이다. 도덕 감정은 적대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도덕 감정(분노·불의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도덕 감정(회한·죄책감·부끄러움), 그리고 긍정적 도덕 감정(희생·성스러움·자부심)의 이상블로 구성된다.¹³⁾ 이 감정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

12) 진정성은 80년대 이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형성되어 세대의식의 핵심을 구성하고, 90년대 문학과 문화의 영역에서 심화되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된 것, 즉 386 세대의 레짐 혹은 주체화 장치였다. 즉, 자책은 양심의 다른 이름이자 운동의 추진력인 것이다. 김홍중,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9~22쪽.

13) 신진욱, 『사회운동의 연대 형성과 프레이밍 과정에서 도덕 감정의 역할』, 『상징에서 동원으로』, 정철희 외, 이학사, 2007, 83쪽.

께 간다. 주체에게 주어진 충격을 주체의 우월한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데에서 숭고한 감정이 발생하는데, 이는 죄책감이 인간 이성의 우월성을 확인해주는 계몽적 기획의 정서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김홍중에 따르면 진정성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기초한 내성적이고 사적인 윤리의 계기를 결여한 채 사회와의 관계에 기초한 참여적이고 공적인 도덕의 계기가 우선시될 때 강력한 헤게모니를 통해 행위자를 억압하는 사회적 슈퍼에고로 균립할 공산이 크다. 진정성은 무엇이 진품 즉 진정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증의 대상이 아니라 주장의 대상이 되며 과잉이 아닌 결여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즉, 진정성을 발화하는 자는 대개 ‘나의 진정성’과 ‘타인의 진정성’을 불균등하게 전제하고, 부재하는 것으로 설정된 타인의 진정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의 언어는 상처의 언어, 배제의 언어, 전제(專制)의 언어로도 작용한다. 불행하게도 80년대적 진정성 레짐은 개인의 충분한 성찰에 근거한 사회운동이라기보다 역사적 책무나 책임의식이 선행하면서 개인들을 도덕적으로 동원하는 양성을 띤 것이었다.¹⁴⁾ 정치학자 전인권 역시 『남자의 탄생』에서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 속에서 권위주의적 남성이 탄생하는 과정에 관한 자기고백적인 분석을 시도하며 정치적 진보를 표방했던 386 세대마저, ‘동굴 속 황제’의 나르시시즘과 권위주의적 자아의 구조를 허물지 못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 의사소통 능력의 결여 등 여러 부정적 증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¹⁵⁾

그런데, 이러한 권위주의적 나르시시즘의 근저에는 자기에 대한 무지 혹은 성찰의 무능력이라는 문제가 깔려 있다. 기실 386 세대는 부조리한

14)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32~36쪽.

15) 전인권, 『남자의 탄생』, 푸른 숲, 2003.

역사를 구원하리라는 식의, 즉 과대한 자아의 망상에 시달리는 한편으로 역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짓눌리는 분열적인 존재이다. 즉 386 세대는 혹독한 자기비난에 시달리는 불행한 의식의 소유자인 동시에 영웅적 자아의식에 빠져 자기에 탐닉하는 유아적인 인간에 속한다. 그 결과 386은 공적인 자기와 사적인 자기의 괴리를 좁힐 수 없어 위장과 가면 쓰기에 능하거나, 속으로는 깊은 분열을 겪는 병리적 인간의 계보에 속한다. 또한 만물을 도덕적으로 선한 우리와, 타락한 저들로 이분화하고, 저들의 부패와 악덕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타락과 허위에 대해 볼 수 없게 된다. 386은 쉬이 부패해 버릴 수 있는 이 름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386 세대가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식인 자책은 기실 자기에 대한 폭력이자 타자에 대한 폭력을 예비하고 있는 메커니즘이 된다.

“진정한 반성이란 무엇인가. 동지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죄책감과 자학은 이제 진정 모두를 위해서 말끔히 버리자. 이제부터 진정으로 강직하고, 건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모습으로 내게 주어지는 역할들을 수행해내면 되는 것이다. 나의 자리를 나 자신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 아무도 조직 내에서 나의 자리를 마련해주지는 않는다. 나의 이익과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이 일치되는 날 나의 자리는 저절로 찾게 될 것이다. 우선 ‘င’에 대한 나의 감정을 정리해야 한다. 감상적인 사랑, 나약한 사랑은 우리의 적이다. 사랑은 투쟁과 일치할 때에만 가치가 있다. 나 자신의 감정에 연연하지 말고,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큰 사랑을 이루자.

무엇보다 먼저 ‘문’과의 감정적인 관계를 청산할 것.

첫째, 주체성과 비타협성 및 자생성-강인한 의지와 신념, 결단성이 요구된다.(이하 생략)”

(전경린, 『아무곳에도 없는 남자』, 문학동네, 274쪽)

위에서 한 익명의 여대생이 쓴 일기는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386 세대 여성들의 고뇌를 육성처럼 생생하게 담고 있어 흥미롭다. 일기 속 여대생은 공과 사, 감정과 이성, 개인적 욕망과 집단의 대의, 사랑과 혁명의 이분법 속에서 자신의 나약함, 이기주의, 감상성 등을 질책한다. 그녀들은 반민주세력이나 악독한 재벌보다 제 자신과 더 많이 싸웠던 사람처럼 보인다. 특히 이들은 마치 일용할 양식처럼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의 감정에 휩싸인다. 이들의 작품 속에서 여학생들은 부정적 도덕 감정에 더 많이 지배 받고 있는 듯 보인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운동권 내 열등생인 여학생들을 타자화함으로써 부끄러움과 수치의 감정에 덜 노출되었던 데 반해, 비교 우위의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여학생들은 타인과의 공감과 연대라는 이상적 규범의 기대를 스스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더욱 짓눌렸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육체는 여성성 상실에 대한 사회적 금기와 함께 여학생 운동권들을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열등생으로 위치짓게 된다. 혁명의 대의를 위해 헌신하기에 여성의 육체는 너무나 허약하거나 예민해서 정신 혹은 이념의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혁명은 폭력처럼 여성이 자기의 육체와 성별을 비감하게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80년대 세대처럼 혁명이 정치와 일상, 집단과 개인, 당위와 욕망, 이념과 취향 등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고, 후자를 과도하게 억누를 때, 여성이라는 성별은 상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듯, 남성작가의 경우 자책감이 나르시시즘적 향수 충동과 연동하면서 과거를 영웅의 시간으로 구조화한다. 386 남성 세대의 후일담이 과거에 대한 퇴행적 향수로 위무하려는 우울한 나르시시스트들의 포즈라면, 그녀들의 후일담은 후일담의 일반적 구조를 벗어난다.

여성 386 세대들의 후일담 소설은 혁명이 좌절된 뒤 비로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성별에 눈 뜬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문제적이다. 그것은 과거

에 대한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소환의 형식이 되면서 성별화된 기억의 양상을 띤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사회와 여성, 의식과 무의식, 계몽과 욕망, 이성과感性, 주체와 사물, 정신과 몸, 금욕과 탕진, 중심과 주변, 광장과 밀실 등 세상에 대한 견고한 이분법 위에 구축된 386 세대의 정치 철학이 심문에 부쳐진다. 여성 386들의 후일담은 혁명의 시간을 감상적으로 추억하기보다, 좀더 신랄한 해부의 성격을 띤 가능성도 높다. 특히 본 연구는 대표적인 진보주의 작가 혹은 386 여성작가로 꼽히는 공지영과 김인숙의 작품에서 매우 이질적이면서 유사한 측면들이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것은 ‘속’됨에 대한 이질적 태도이다. 공지영의 소설은 속됨에 대한 극도의 콤플렉스 혹은 성스러움에 대한 선망을, 김인숙은 세속적인 것에 대한 히스테리컬한 열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사람의 후일담 소설은 공히 성스러움의 압력에 짓눌린 자들의 피해의식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발현된 결과물이다. 공지영의 후일담은 386 세대에게 순정함과 진정성을 광휘를 부여해 역사를 자기의 추억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르시시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여기에는 역사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열망이 깔려 있다. 중심을 열망하는 주변의 글쓰기가 공지영의 문학이다. 반면 김인숙은 80년대를 통과하면서 원초적인 자기를 잃어버린 혹은 욕망을 짓눌린 인물을 통해 혁명의 위선과 억압을 공격하고 들추는 퇴폐의 열정을 선보이며 80년대가 억누른 욕망들 소환한다.

3. 희생적 통과제의와 신성한 히스테리: 공지영

공지영은 대중 독자에게 386 세대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평단은 그녀의 작품을 값싼 향수의식이나, 유아적 나르시시즘이 폭발한 사례로 간주해 왔다. 실제로 정문순은 “<고등어>에서 작가가 80년대 사

회운동에 투신한 젊은이들을 “강가에 나가서 강물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에조차 죄책감을 가졌던 세대”라고 표현하는 데서 보듯 지난 연대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주관적 감상이 지나치다 못해 신과조로 전락한다¹⁶⁾고 비판한다. 이 말은 공지영의 문학이 참혹한 이픔의 증거라기보다 잔뜩 치장하고 부풀린 전시의 언어로서, 자기 영웅화의 욕망을 은닉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모두가 들으라고 공중에 대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즉 나르시시즘적 황홀의 증거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분명 꽃을 꽃이라 부르는 데서 죄책감을 느끼는 세대, 혹은 꽃 속에서 피의 냄새를 먼저 맡았을 만큼 과잉 정치화된 세대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언어의 조작과 허위의 기미를 포착하기보다 왜 과장된 치장이 필요한가에 대해 질문해야 할 것이다.¹⁷⁾

공지영 소설에 치장이 많다는 것은 그녀가 자기반성과 도덕적 심판의 추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부풀려진 탄식은 자신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단편 「무엇을 할 것인가」(93)는 공지영 소설의 페르소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이러한 과잉 치장의 숨은 동기를 암시한다. 이 작품은 ‘나’로 지칭된 서른살의 여성 화자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소식을 듣고 지나간 시간을 떠올림으로써 자신의 비겁한 연명에 대한 자책감에 휩싸이는 후일담의 구조를 취한다. 이제 아무도 혁명을 꿈꾸지 않는 어느 날, ‘나’는 김정석이 사상범으로 형기를 마친 후 사촌형님의 골프용구점에서 일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으며, 시위 중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연인과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회상은 더 오래된 시간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기억 속에서

16) 정문순, 「통속과 자기연민, 미성숙한 자아: 조숙한 여자아이 수준의 인식에 머무르는 대한민국 여성작가」, 『한겨레21』, 한겨레신문사, 2007. 4. 24.

17) 공지영 소설이 대중적 성공을 거둔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치장술에 담긴 통속적 코드 때문이다.

‘나’는 불안한 시대 상황을 피해 도피하듯 대학원에 들어가지만 차라리 감옥에 있는 게 편할 듯해 대학원을 중단하고 운동권의 지하 조직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녀는 개인주의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의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직원에게 노골적인 질타를 받는다. 더욱이 ‘나’는 수배자 김정석에게 구애하고, 그 결과 김정석은 조직활동의 지도를 중단하고 자취를 감춘다. 그 후 ‘나’는 조직을 떠난다.

‘나’의 부끄러움의 감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김정석에 비해 현재 대학의 전임 자리를 얻음으로써 안락한 일상을 거머쥔 ‘나’의 삶이 속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부끄러움은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방어막으로서, 일찌감치 빠져 나온 자가 자신도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음을 증명하는 알리바이 장치이다. 자책은 살아남은 자가 자신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앞서 말했듯이, 부끄러움을 통한 자기 진정성의 증명은 공지영 소설만의 특징이 아니라 후일담 소설의 기본 구조에 가깝다. 그러나 남성 작가의 경우, 이러한 죄책감이 잃어버린 총체성을 다시 거머쥌으로써 계몽 주체를 다시 세우기 위한 감정의 전략인 데 반해, 공지영 소설에는 고양이에게 쫓기는 쥐의 공포 혹은 억눌린 자의 비명이 묻어 있다. 이후 다시 논하겠지만, 이러한 이유로 그녀의 작품은 자기존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과대해진 자의식, 나아가 히스테리의 기미마저 풍기고 있다. 그녀는 왜 이토록 과장되게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하는가? 거기에는 중산층이라는 그녀의 계층적 콤플렉스만이 아니라 성별 혹은 육체에 대한 자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93)로 돌아가 보면, 대학원에 있는 게 감옥을 가는 것보다 더 편하지 않다고 느꼈던 화자를 조직이탈자로 내몬 것은 폭력, 특히 육체의 섹슈얼리티에 가해질 위협에 대한 공포였다. 화자가 도피하듯 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사복경찰에 의해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이자, 마침 여대

생이 건물 옥상에서 경찰에 몰려 추락하는 사건을 목격한 직후였다. “1983년의 어느 가을날, 낙엽이 지는 교정의 뒷 숲에서 여학생들이 우수 수 강간을 당하고 다음날 벌어진 시위……여학생들의 치마를 발겨 놓고 유유히 사라졌던 사복경찰들의 이야기가 흥흥하게 떠돌던 가을이었다”(101쪽)라는 서술은 이 일이 화자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음을 암시한다. 강간 사건이 사실적이라기보다 흥흥한 소문 혹은 공포가 자아낸 환영인 양 과장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녀가 독재 권력에 대한 공포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감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권력 앞에서 벌거벗은 신체가 느끼는 위협은 공포와 마비된 의식으로 드러난다는 아감벤의 말처럼 화자는 조직활동에 나서기를 망설인다.

반면 작가의 데뷔작 『동트는 새벽』(1988)은 평범한 여대생이 가출-조직 활동-위장취업-구로항쟁참여-구치소 체험을 통해 투사로 태어나는, 즉 운동권 여대생의 80년대식 ‘교양’ 과정을 담고 있다. 주인공인 정화는 교양의 길에 접어든 순진한 신참자로서 마치 스피치처럼 운동의 이념과 청년 주체의 자질을 학습해 간다는 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여성 화자와 대조된다. 이 작품은 운동권 여학생에게 육체가 전사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폭력의 정치가 날뛰는 시절에 전사의 자질을 증명하는 길은 육체로 상징되는 이기와 안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혁명가에게 육체는 패배의 기억이나 혹은 승리의 기억과 맞물려 있을 것이다. 육체는 전사가 되기 위한 지난한 훈련의 장소인 것이다. 운동권-전사되기는 육체의 극한 상황을 체험함으로써 육체를 초극하는 통과제의적 과정을 동반하는데, 이렇듯 강인한 여성이 됨으로써 남성들을 압도하고자 하는 욕망은 공지영 소설의 젠더와 여성 육체에 대한 자의식을 암시한다.

이 작품은 침묵과 부재의 형식으로 권력 앞에서 느꼈던 공포를 역설한다. 대학 졸업을 앞둔 여대생 정화는 변혁 운동에 뛰어들기 위해 중산층

가정을 나와 위장취업을 하던 중 ‘구로항쟁’에 휘말리게 되어 구치소에 감금된다. 정화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고민 끝에 조직활동에 나선 『무엇을 할 것인가』 속 ‘나’의 도플 갱어라 할만하다. 그런데 이 작품은 정화를 비롯한 여성들이 구치소에서 겪은 폭력의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반해 폭력 앞에 무방비 상태의 육체가 느낀 공포와 두려움의 표현은 극도로 억제하고 있다. 부재와 침묵은 화자가 기실 절대 권력 앞에서 느낀 공포의 크기가 존재를 초과하는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이 곧 트라우마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통의 신음소리와 비명을 억누르는 것은 남녀평등의 대의라는 점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그것은 80년대 진보 문학이 그러하듯 ‘노학연대’에 대한 시대적 강박증과 함께 비명을 억누르는 기능을 한다.

— 왜 광주를 참혹하다고만 생각하지? 난 그때 처음으로 대동세상을 보았는데.

광주에서 올라온 선배의 말이 떠올랐다.

“혜순아, 우리 이거 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자.”

순영이 손가락으로 올타리가에 햇불을 들고 서 있는 규찰대를 가리켰다. 들은 양손에 김밥을 들고 그리고 달려갔다.

“출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그런데 여자분들은 집에 가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 사실 싸울 때 여자분들이 있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학생이 한 손엔 햇불을 들고 한 손으로 김밥을 먹으면서 씨익 웃었다.

“아니에요. 같이 싸워야 남녀평등이지요.”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젊은 남자가 슬쩍 끼어들었다. 어두운 하늘 끝까지라도 밝힐 듯햇불이 타올랐고 순영은 정화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박 웃고 있었다. (『동트는 새벽』, 297쪽)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양화 과정에서 ‘광주’라는 신성한 기호와 노학 연대라는 운동의 지표가 결합해 정화의 통과제의를 인도한다. 즉, ‘광주’ 트라우마와 노학연대의 운동 이념은 강인한 여성 주체 특히 불굴의 육체가 탄생하는 산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이 통과제의의 시험대임은 인용된 장면 뒤에 끔찍한 폭력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둔탁한 몽둥이질을 당하고 육중한 위커발로 짓밟히고, 머리가 터지고, 차가운 대결레가 가슴팍을 헤집어대고, 육설의 폭격을 받으면서 정화는 “우린 포로였다. 그들에게 우리는 개, 돼지였다”(300쪽)고 씩씩히 자각한다. 그러나 폭력의 폭풍은 견고한 노학 연대와 깊은 신념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 소설은 정화가 위장취업한 공장에서 만난 순영과 계층적 차이를 넘어 ‘우린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결속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순영과 정화는 수감자 모두가 반성문을 쓰고 나가는 구치소에서 유일하게 반성을 거부한 ‘독종’들로 주목받는다. 이 작품에는 대학생 신분을 벗어나 노동자 의식을 획득해가는 과정은 기실 여성이라는 허약한 이름을 벗어나 강인한 전사되기의 과정과 일치한다. 따라서 운동권 되기는 평등을 쟁취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별 혹은 육체의 차이는 부인되고, 나아가 말할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역설이 발생한다.

386 세대 여성들이 느낀 콤플렉스는 여성적 히스테리를 통해서도 증명된다.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로 돌아가 보자. 조직원들의 미움을 받던 ‘나’는 조직 활동을 지도하던 수배자 김정석을 사랑하게 된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결핵에 걸렸지만 운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수배자로 부자유한 사람이고,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여자를 연인으로 둔 사람이다. 이름처럼 이상적인 운동권의 전형적인 길을 걸어가는 김정석은 ‘나’에게 환한 ‘빛’처럼 여겨진다. 급기야 ‘나’는 정석에게 “난 목숨을 걸 수도 있어요.”(100쪽)라며 구애한다. 이 구애는 곧은 신념의 화신인 김정석을 흔들리게 하는 유혹의 언어로서 기실 ‘나’의 김

정석을 향한 질투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질투'는 우월한 대상 앞에서 느끼는 주체의 결핍이자, 상대에 대한 모방과 선망의 감정과 연결된 감정의 동학이다. 질투는 주체가 자신의 존재를 결핍으로 규정하고 대상의 자리를 선망하거나 차지하려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나'의 질투는 김정석의 신념을 파괴함으로써 상처받은 감정을 회복하려는 병리적 징후마저 보인다.

이러한 인정투쟁이 좀 더 히스테리컬하게 드러난 작품이 바로 공지영의 히트작인 『고등어』(94)이다. 남자 주인공 명우는, 비록 부르주아의 자서전을 대필하는 신세이나 90년대식으로 쿨하지만 속도 깊은 애인과 함께 쾌적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어느날 명우 앞에 80년대의 동지이자 그가 버린 연인이기도 했던 은림이 가족도 잃고 불치의 병이 깊어져 죽어가는 육신으로 나타난다. 과거 두 사람은 조직 내의 동지로서 각각 배우자를 두고도 서로 사랑에 빠지면서 조직의 비난을 받았다. 그 결과 명우는 은림을 버리고 조직을 떠난다. 반면 은림은 조직 활동을 계속하며 비난과 죄책감을 견디어낸다. 십년의 시간 뒤, 병든 육신으로 돌아온 은림은 자신에 대한 명우의 책임과 죄의식을 일깨우며 그의 평온한 삶을 뒤흔들어 놓는다. 은림은 명우의 오피스텔에 단지 고요한 시체처럼 누워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실 그녀의 육체는 명우의 애인을 몰아내고, 발작적인 기침과 기절 그리고 죽음의 징후 가득한 어둡고 썩한 얼굴로 자신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돌봄을 유도하는 히스테리한 육체이다. 결국 명우는 은림을 버린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루고, 은림은 명우의 품에 안겨 그를 용서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다. 명우의 품에 안긴 은림의 형상은 마치 죽어가는 예수처럼 숭고의 감정을 일깨운다.

이 작품의 흥미로운 지점은, 노명우는 은림에게 처벌받고자 하고, 은림은 그러한 처벌의 자격을 얻기 위해 자신을 온통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명우는 은림에 대한 기억을 보유함으로써 자신을 처벌하고, 이로써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은림은 모든 치료를 거부하며 죽어 간다. 그렇다면 은림이 자신을 망가뜨려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비록 동지와 불륜의 로맨스에 빠지지만 은림은 지나칠 정도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조직 활동에 임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조직 활동에서 늘상 부적합한 성향의 인간으로 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과학적·객관적으로 사물을 사고하기보다 감성적·주관적이기 때문에 늘상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성과 감성이 각각 남성과 여성의 젠더적 자질로 운위되어 온 데서 알 수 있듯이, 은림의 성실한 조직 활동은 386 여성 세대의 여성 젠더에 대한 콤플렉스 혹은 억압의 체험을 암시한다. 은림은 마치 누가 더 자질이 우수한 인간인가를 묻기라도 하듯 상대의 죄의식을 일깨우며 신성한 아우라 속에서 사라져 간다. 물론 이는 조직 내 동지와 바람이 난 그녀 자신에 대한 처절한 응징의 방식도 된다. 그러나 스스로를 혹독하게 처벌하면 할수록 더욱 더 윤리적인 인간임을 입증하는 기이한 게임의 규칙 속에서 자기 처벌은 기실 자기 자신을 신성화하는 행위이다.

4. 훼손당한 젊음과 포르노적 열정: 김인숙

『유리 구두』(창작과비평사, 1998) 『꽃의 기억』(문학동네, 1999) 『브라스 밴드를 기다리며』(문학동네, 2000) 『그 여자의 자서전』(창비, 2005) 『안녕, 엘레나』(창비, 2009) 등 여러 작품집에 등장하는 김인숙의 여주인공들은 고독과 막연한 그리움, 공허와 무기력으로 가득찬 일상 속에서 어떤 것에도 진정한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없는 우울자의 감정 구조를 보여준다. 그녀의 주인공들은 주로 대도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들이는데, 이들이야말로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에서 엠마 보바리를 삼켜버

렸던 권태와 무의미의 포로들이다. 이를 테면, 『술래에게』의 주인공인 삼십대의 주부는 무료함과 심심함을 참을 수 없어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허위신고를 하고, 옆 집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며, 카지노에서 잭팟을 터트리자 환희의 고향을 멈추지 못하는 식으로 병리성의 징후를 풍긴다. 그런데, 여자가 앓는 지독한 권태감은 중산층의 여유 있는 삶의 조건이나, 단조롭고 고립된 사적 영역에 갇힌 주부의 위치 탓으로 환원하기 어렵다. 또한 공허한 심사는 활기찬 분주함과 유쾌한 웃음 속에 감추어진 모더니티의 얼룩 혹은 이면을 드러내는 효과는 있지만, 모더니즘 미학의 문제의식과 딱히 관련성이 없다. 그녀들을 짓누르는 권태감은 빛나는 이념과 가치를 찾을 수 없어 공허해진 마음, 즉 열정의 불가능성을 의미한다기보다 고요한 세상을 위협에 빠뜨리고 싶은 불온한 욕망에 가깝다. 그것은 오래도록 감정과 욕망을 억압당해 온 데 따른 반응이다. 이렇듯 사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고약한 심사는 악동의 맹랑함보다 병리적인 기운에 가깝다.

김인숙의 소설은 청춘의 모험이 실패로 돌아가 싱싱한 활기를 잃어버린 80년대 세대의 무기력하고 공허한 연명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후일담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 그녀의 주인공들 역시 마치 미지의 장소에 불시착한 비행기처럼 90년대의 시공간에 적응하지 못해 고통스럽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지영의 주인공들이 자책의 강도를 높여가며 자신의 진정성 혹은 신성함을 입증하기 위한 인정투쟁을 펼치고 있는데 비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변명 혹은 옹호하기보다 꿈을 잃어버린 자의 비감한 인식을 그리거나 공허를 메우려는 절망적인 몸짓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포르노적 섹슈얼리티가 정치적 열정이 휘발된 시대를 위안하는 주술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은 80년대라는 이념의 시대가 추방했던 욕망 혹은 억압된 무의식이 귀환한 증거이다. 김인숙의 후일담 소설은 개인과 사회, 나와 타자, 글과 말, 욕망과 당위, 기

질과 규범 속에서 자기 혹은 문학을 잃어버린 불행한 여성 작가의 초상을 담는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에 머물지 않고, 80년대 여성 세대가 혁명의 이념에 짓눌려 자신의 여성성과 불화해온 경험을 압축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김인숙의 후일담 소설 속의 여성 육체는 80년대에 대한 히스테릭한 공격의 다른 언어이다.

『유리구두』(1993)는 포르노적 열정에 매달려 시대적 상실감을 위무하려는 80년대 세대의 이야기이다. 대기업 엘리트 사원인 ‘나’는 “자신의 평범함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상보다는 현실에 순응하는 속물이 됨으로써 80년대와 결별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의 삶의 균형과 질서는 대학 동창생인 유선을 만나 그녀의 광기와도 같은 섹스의 수단이 되면서 흔들린다. 자칭 ‘섹스주의자’인 유선은 “내게 남은 마지막 가능성이야. 나한테 섹스는 그렇게 위대한 거라구.”(9쪽)라고 주장하며 포르노적 열정에 매달린다. 한때 유선을 사랑했던 ‘나’는 그녀의 이러한 태도에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나’는 유선을 혐오하면 할수록 그녀에게 더욱 이끌린다. 여기서 ‘나’와 유선의 포르노적 섹슈얼리티는 단순히 성애의 차원을 벗어나 80년대식 열정을 재체험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광장에서의 열정은 ……그 열정에 바칠 가능성은, 이제 없어”(30쪽)저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랑 대신에 섹스를, 광장의 열정을 침대의 열정에서 경험하려는 이들의 태도는 단순히 위악적 चेस्처, 즉 80년 세대들의 거대한 상실감을 보여주기 위한 충격적인 장치인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과잉 정치의 시대, 즉 욕망을 과도하게 감시해 온 80년대에 대한 공격의 욕망이 병리적인 기운을 뿜어내며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작품의 제목은 왜 ‘유리 구두’인 것일까? 유리 구두는 “밤 열두시의 종이 쳐 다른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할지라도 오로지 하나 변하지 않는, 유리 구두의 찬란함, 그것을 비밀스럽게 간직할 수만 있다면…….”(27쪽)이라는 서술이 암시하듯 변하지 않는 이상 혹은 가치의 상

정이다. 80년대 세대들에게 유리 구두는 이념이었을 것이고, 포르노는 ‘유리 구두’, 즉 구원의 마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시대의 적나라한 초상일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김인숙에게 이념의 상실이라는 문제는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상징하듯 여성 구원의 문제로 환유되어 진술된다는 것이다. 화자에 따르면, 유선은 어린 시절부터 유리구두를 갈망해 왔다. 유리구두의 아름다움만이 다리 길이가 각기 다른 불구의 상처를 감추어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선의 발목을 쥐고도 그녀가 소아마비를 앓았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이는 유선이 자기존재에 대한 치명적인 결핍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유선에게 유리 구두는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자신이 거세당했다고 가정하는 여아의 페티시적 소망의 대상이다.

유선의 유리구두 콤플렉스는 386 세대 여학생들이 이념과 욕망 혹은 인간과 여성 사이에서 느낀 분열에 관한 모티프도 된다. 유선의 각기 다른 길이의 다리, 즉 부조화에 대한 민감한 자의식은 『풍경』(96)에서 본격적인 고찰의 대상이 된다. 작가이자 주부인 주인공은 십오년 만에 홀로 떠난 여행에서 자신의 삶이 균형과 조화를 상실했다는 생각에 몰두한다. 이를 테면, 그녀의 목소리는 얼굴에 비해 너무 옛되며, 그녀는 글보다 말을 사랑하고 남편의 옆에 누워 남편이 아닌 ‘그’에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등, 즉 의도하지 않은 배반을 반복한다. 부조화에 대한 주인공의 민감한 자의식은 점차로 자신의 글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옮겨가는데, 이 부분은 386 여성작가의 글, 즉 진보주의 문학에 대한 생각을 엿보게 한다.

“그녀가 기억하는 한, 그녀는 어른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미 글을 쓰는 여자였다. 글을 쓰지 않는 어른으로서의 그녀,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어른으로서의 그녀는 기억에 없다. 왜 그래야 했을까. 그녀가 보낸 이

십대. 옴음과 그룹에 대해서만 늘 생각한 그 시절 그 누구도 그녀에게 글을 쓰는 일만이 옴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글은 그녀에게 상처였고 부끄러움이었다. 더듬거리는 말투, 구호를 외치기에는 턱없이 여린 목소리……투석을 해도 앞에 나선 남학생의 뒤통수나 맞힐 뿐이었던 그녀는, 숨을 곳이 필요했으리라. 그리고 아마도 그래서 글을 썼을 것이다. 더듬거리는 말투와 작은 목소리와 여린 손목 모두를 감출 수 있는. 애정결핍증이었다면 그때부터가 아니었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불길 속으로 내던진 시대…… 글은 그녀의 눈물까지도 숨겨주었던 것이다. 숨는 것에 익숙해진 그녀,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자기하고만 했다. 죽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도 자기하고만의 약속이었다”(『풍경』, 93쪽)

“그녀는 길을 걸을 때 그녀와 보조를 맞추는 옆사람만을 바라보았다. 그녀보다 앞서 걷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뒷등만 보았다. 힘겨웠던 이십대……그러나 늘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의 옆에, 그녀의 앞에 그리고 그녀의 뒤에도.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결핍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녀가 말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말을 하는 사람들……그들은 말했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또 말했다. 글을 쓰라고……그녀의 글이 무기가 되리라고.”(『풍경』, 100쪽)

위의 화자가 글쓰기의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봉착했음을 암시하는 부분은 작가 자신의 솔직한 고백도 된다. 그간 진보주의 작가의 대표 주자로 활동해온 작가는 소설 속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자칫 자신의 80년대 문학을 온통 부정 혹은 청산하고 있는 듯 보이는 충격적인 질문을 꺼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글쓰기는 부끄러움이고 상처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투석이나 구호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글을 써왔다고 고백한다. 이는 그녀의 진짜 글은 독자에게 읽히지 못한 채 말 그대로 그녀와 함께, 즉 사적으로만 존재하며, 그녀가 세상에 투석 대신

에 내민 글, 즉 80년대의 글쓰기는 온전히 100% 그녀의 영혼으로 씌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작가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의 언어로부터 소외 혹은 배제되어온 것이다. 자신의 글쓰기가 기실 타인들이 준 규범일 뿐이지 정작 자신의 글쓰기는 다른 곳에서 이루어져왔다는 주장은 규범과 취향, 당위와 욕망 사이의 분열을 암시한다. 80년대 세대라면 누구나 겪었을 법한 이러한 곤경이 젠더 갈등의 형식으로 재현되었다는 점에서 김인숙의 소설은 작가의 자전적 경험에 기반을 두었음에도 386 여성 세대에 대한 고찰이 된다. 여기에는 386 세대의 여성 운동권들 역시 전 세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착한 누이 혹은 착한 딸 콤플렉스에서 그리 크게 벗어나지 못한 소외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그 여자의 자서전』은 부르주아의 자서전을 대필하는 여자 작가의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부조리한 현실과 운동권 세대들의 환멸어린 실존에 대한 성찰을 의도한다. 타락한 부자는 민주화 운동의 이력이 출세에 도움이 되는 시대를 맞아 거짓으로 가득 찬 자서전 대필을 의뢰하고, 386 세대 작가는 매문에 대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돈의 유혹에 승복당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글쓰기가 저항성을 잃고 자본의 노예가 되어버린 수상한 시절을 씩씩히 반추하게 만든다. 그러나 주인공의 글쓰기가 정작 작가 자신의 욕망을 결여한 채 씌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그녀의 글은 타자에 의해 굴절되고 훼손된다. 그녀는 자신의 글만이 아닌 애인과의 관계에서도 소외되어 있다. 이를 태면 그녀가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그녀의 애인은 그녀의 소설에 관심을 갖지만, 그녀는 자신의 소설의 즐거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 삶, 내 행복과 고통의 전부”(28쪽)를 말해주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백은 그녀의 소설 속에 그녀라는 저자가 살고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그녀에게 소설은 그녀의 진실이 담기지 않은 허구인 것이다. 또한 자서전 대필가가 되

어버린 여자는 오빠와 아버지의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기억함으로써 글쓰기의 윤리를 회복한다. 그녀는 여동생이 글 쓰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식들이 책 속에서 자신이 주지 못한 삶의 지혜를 얻기 바래 책을 사들였던 아버지의 책장의 의미를 발견한 뒤, 부르주아 자서전을 대필하는 것을 중단한다. 이는 여자가 ‘아버지의 이름’ 즉 아버지의 규범과 이념 속에서 구축된 허구 혹은 환영임을 암시한다.

『바다에서』는 정치에 짓눌려 개인성과 자유를 박탈당한 386 여성들의 트라우마를 보여준다. 이른 나이에 등단하고 베스트셀러로 화제에 오른 바 있는 주인공은 가두 시위 중 붙들려 구치소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경찰 서장으로부터 그녀의 최초의 장편소설을 싸인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 일이 주인공에게 극심한 트라우마였음은 언젠가 구치소 체험을 글로 쓰리라 마음 먹었음에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녀는 “80년대에 바칠 수 없던 그녀의 소설 때문에. 그녀가 하고 싶은 일은 유치장에 갇히는 일보다는 소설을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것을 말할 수 없었고, 인정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보낸 열흘을 말하지 못한다. 이 일은 그녀에게 “경찰서장이 싸인해달라고 내밀 수 없는 소설을”(235쪽) 쓰겠다고 결심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유치장에서 풀려났지만 소설이라는 감옥에 갇혀 자기의 목소리를 잃게 된다. 여기에는 작가의 자전적 체험이 반영되어 있다.¹⁸⁾

18) “사실 나는 어쭙지 않게 구류 한 번 살아본 이래로 모든 종류의 ‘간힘’에 대해 겁에 질려 있었다. 오직 무사하기만을 바랐던 내 절실함은, 부끄러움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내 진심이었다. 현장……그것 역시 마찬가지였다. 내가 대학에 다니던 어느 한 시기, 올바른 사람이라면 징역을 가고, 또 올바른 사람이라면 졸업하지 않은 채 현장으로 떠나갔다. 불행히도 나는……그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싶지 않은 것의 차이. 그 시절의 고통은 대개 그러했던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리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조차 그 시대가 부과한 고통은 뭇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래서 더욱 컸던 것. 주장할 수 없는 개인적 존재, 그 안에서 상처로만 씌어가던 것들,”(김인숙, 『추억일 수 없는

특히 이 비극의 한 가운데 여성성과 남성성의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즉 하나는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386 세대 여성의 고뇌 혹은 두려움이 실려 있다. 이십대 초반의 구치소 경험에 대한 회고는 다른 한편에 삼십대의 소설가인 ‘그녀’와 사춘기 시절의 친구였던 J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멀어져간 이야기들이 겹쳐져 있다. 여기서 아름답고 매혹적인 친구 ‘J’는 그녀가 운동의 대의 속에서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성, 개인성, 풍요로운 일상, 소비의 매혹을 상징한다. ‘J’는 ‘그녀’가 선망하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단번에 매혹의 대상이 된다. 캐나다에서 온 열일곱의 ‘J’는 침대가 있는 자기 방을 가졌으며, 숨막힐 듯 잘생긴 애인을 숨겨 두었으며, 필터 끝을 물에 적시면 사랑하는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다는 양담배를 가졌다.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매력을 풍기는 ‘J’는 솔직하면서도 자유롭고 열정적인 삶을 상징한다. 그러나 ‘나’는 대학에 들어와 운동권 여학생이 되면서 ‘J’와 멀어지고, 이와 함께 그녀 내면 속의 ‘J’ 역시 억눌리게 된다. “데모를 시작한 뒤로, 그녀의 세계는 너무나 선명하게 양극화되어”(255쪽)버렸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J’는 편가르기에 골몰했던 시대가 살해한 나의 욕망을 암시한다.¹⁹⁾

이러한 탓에 김인숙의 소설에서는 파손된 젊음, 당차게 성숙의 도정을 떠나기도 전에 몽개져버린 젊음의 이미지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리고 그녀들은 상실한 꿈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는 듯 이제 중년이 되어, 이 고통만 지나면 언젠는 ‘황금다리’를 만날지 모른다는 허망한 예언에 기

현재],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5, 169-175쪽)

19) 이 글에는 작가의 자전적 체험의 실려 있다. “나는 1983년에 등단을 했지만 1986년, <79-80, 겨울에서 봄 사이>의 김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의 문학’이라 이름붙일 만한 것을 갖지 못했었다. (중략) 역사와 시대를 알지 못했던 시기에 썼던 글을, 그래서 동시대인의 고뇌와 고통을 모독했던 글들…쓰레기…(중략) 나의 80년대는 그렇지 않았던가, 전면적 부정 그리고 오직 혁명적인 건설. 그것을 믿었던 시기에 그러한 글들을 썼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은…파괴와 혁명으로만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을 텐데. 왜 신념밖에는 없었을까.”(김인숙, 『추억일 수 없는 현재』, 위의 책)

대 스스로를 위로하거나(『풍경』) 죽음을 소망하며 생에 대한 비탄에 젖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과적 눈물 혹은 인생은 허무하다는 식으로 범속한 인생철학을 반복한다. 김인숙 소설이 유일하게 활기를 띠는 순간은 육체의 열정을 통해 잠시 위안을 얻을 때이다. 『우리 구두』의 ‘나’는 대학시절 유선을 처음 보고 사랑에 빠지지만 그녀의 “불꽃같은 눈, 화염같은 눈동자”를 들여다본 순간, 유선에게 가까이 가지 못한다. 유선의 눈동자는 금욕주의로 무장한 80년대 세대가 여성 혹은 여성성에 짐지우고 봉인해버린 욕망이라는 터부의 상징이다.

5. 결론

얼핏 ‘후일담’이라는 말은 현실의 억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떤 저항도 불가능해진 양 과장스럽게 절망의 포즈를 취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긴다. 실제로 후일담 소설은 상실감과 허무의 감각이 압도하는 신과 혹은 센티멘탈한 감정의 극장이다. 후일담 소설은 달라진 사회현실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나 대응방식을 찾지 못한다는 점에서 서사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된다. 객관 현실의 총체성을 확보할 수 없는 왜소한 주체의 주관주의적 감상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도의 무능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90년대의 달라진 사회적 상황 속에서 마치 편집증을 연상시키리만큼 맹목적으로 역사의 진보를 믿었던 80년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이끌어내면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할 때, 후일담은 퇴행적 유행가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길찾기나 성장의 새로운 형식도 될 수 있다. 이를 증명하듯 남성들의 후일담은 향수 충동과 연동하면서 거인이었던 시절로의 회귀를 꿈꾸는 계몽서사의 형식을 띤다.

그러나 여성작가의 후일담은 이러한 야심찬 기획을 거부하는 대신 80년대의 이분법에 의해 배제당했거나 억눌린 타자의 비명을 들려준다. 후일담 소설에서 여성 인물들은 대체로 대열의 선두에서 본 적이 없는 이른바 운동권 주변인으로서 자주 부끄러움의 감정에 휩싸이거나 과대한 자의식을 노출한다. 이들의 소설에서는 영웅의 시절에 대한 추억에 젖을 법한 스펙터클한 사건은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스스로가 영웅임을 증명하는 초월적 고독과 비장한 탄식 혹은 환멸의식도 약하다. 남성 후일담에서 사건의 지속 시간은 주인공이 청년 운동에 떨어져 나가고, 수배를 받고 감옥에 다녀온 후 운동의 이력을 훈장 삼아 현실 정치판에 뛰어드는 식으로 비교적 긴 편이다.²⁰⁾ 그러나 386 여성 후일담에서 이렇다 할 사건은 일어나지 않으며, 여성들은 광장 같은 공공 영역보다 후미진 곳의 여관이나 지하 호프집 같은 데서 우울과 부끄러움의 감정에 휩싸인다. 386 여성 후일담들은 80년대를 치명적인 상흔으로 기억하는 80년대 여성들의 이야기이다.

여성들에게 혁명은 실패한 혹은 완료되지 못한 혁명으로 남게 된다. 여성 386들은 사회관계를 바꾸지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인간이 되는 꿈을 성취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386세대 모두에게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상처의 기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은 권여선이 말하듯이 흉터의 기억인 것이다. 그러나 흉터는 역설적으로 영광의 상흔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386을 단일한 집단으로 규정할 수 없

20) 남성작가들의 후일담 소설이 모두 동일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남성작가의 후일담 소설과 여성작가의 후일담 소설의 문법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이를 테면, 대표적인 386작가로 꼽히는 방현식 『당신의 왼쪽』(2000년)의 경우,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학의 총학생회장 출신이거나 수배자로서 혁명의 중심부에서 쟁의를 일으키는 등 눈에 띄게 활약한다. 이들 작가들에게 초라한 현재 속에서 과거에 대한 회상을 영웅의 시절을 기억하는 방식이 된다. 후일담 소설과 작가 혹은 등장인물의 성별과 서사문법의 차이성은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

지만, 386 세대들의 상당수는 상처의 흔적을 훈장으로 내세우며 현실정치나 제도권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성 386들에게 과거는 유순한 기억으로 남지 못한 채 현재진행형의 고통으로 남아 있다.²¹⁾ 혁명은 폭력처럼 여성이 자기의 육체와 성별을 비감하게 받아들이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한국 80년대 세대처럼 혁명이 정치와 일상, 집단과 개인, 당위와 욕망, 이념과 취향 등을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고, 후자를 과도하게 억누를 때, 여성들은 자신의 성을 상처의 증거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여성 386들의 후일담은 결과적으로 이들 세대들의 실패를 궁극적으로 사유하게 만들으로써 혁명의 시간을 감상적으로 추억하기보다, 좀더 신랄한 해부의 성격도 띤다. 그것은 80년대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혹은 성찰이므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말하는 방식도 될 수 있다. 추억은 미래 혁명의 산실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성 후일담은 나르시시즘적 자위가 아니라, 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한 성찰적 회고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공지영과 김인숙은 가장 많은 후일담 소설을 발표하는 등 여성 386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다. 이들은 20대 초반의 이른 나이에 등단해 여전히 창작활동을 왕성히 펼치고 있으며, 베스트셀러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있는 스타 작가이기도 하다. 두 작가는 대학가 운동권 여학생의 정치적 각성에서 시작해 연애와 결혼, 그리고 이혼과 모성 체험으로 이어지는 생애사적 스토리, 즉 386 세대 여성들의 고백적·체험적인 젠더 서사를 보여줌으로써,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 즉 지난 날의 자신을 반추하며 현재의 좌절한 자기를 응시하는 후일담의 글쓰기가 여성의 젠더 체험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

21) 386이 꿈꾼 혁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들은 역사의 진보를 위해 숭고하고도 뜨거운 희생을 바친 세대라는 명예로운 이름으로 불린다. 386이 너무 일찍 풋풋한 젊음을 잃어버리고 부패해 버린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할 정도 이들 중 다수는 80년대 운동의 경력을 훈장 삼아 정치권이나 학계 등 제도권으로 진입했다.

러나 두 사람의 기억하기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최근 들어, 공지영은 마치 우회적인 형식이 답답하기라도 하다는 듯, 수필이 아닌 소설에서조차 고도의 심미적인 여과장치 없이 일기나 편지, 작중인물들 간의 대화 등 직설의 형식을 빌려 자기 세대의 고뇌와 아픔 그리고 진정성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려 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과 『고등어』에서의 여주인공의 일기, 『즐거운 나의 집』의 편지 등 독자와 저자 사이의 거리를 단축시키며 80년대와 386 세대에게 순정함과 진정성을 광휘를 부여해 역사를 자기의 추억으로 만들려고 하는 나르시시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여기에는 역사의 중심에 대한 열망이 깔려 있다. 중심을 열망하는 주변의 글쓰기가 공지영의 문학이다. 반면 김인숙은 80년대를 통과하면서 원초적인 자기를 잃어버린 혹은 욕망이 짓눌린 인물을 통해 혁명의 위선과 억압을 공격하고 들추는 퇴폐의 열정을 선보이며, 80년대가 억누른 욕망들 소환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작품은 공히 성과 속의 이분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공지영은 성스러움의 의장을 쓰고 숭고한 존재로 386 여성 세대를 입상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공지영 소설이 성적 육체의 흔적들을 온통 지워버렸다는 데서 드러난다.²²⁾ 반면

22) 다음의 인터뷰 내용은 공지영의 성스러움에 대한 콤플렉스를 엿보이고 있어 문제적이다. “지승호: 『즐거운 나의 집』을 읽으면서 공지영 작가가 살갑게 느껴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지영: 어깨에 힘을 빼고 써서 그런가 봐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책을 쓸 때는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 이전 소설의 주인공들은 우선 도덕적으로 옳아요. 그런데 ‘우행시’에서 처음으로 주인공을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로 그렸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 고비를 한 번 넘고 『즐거운 나의 집』에서 저를 모델로 하는 엄마라는 사람의 웃기고 대책 없는 점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사실 저를 보여준다는 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욕할까봐 겁을 엄청 먹었죠. 하지만 나중에 인터넷 댓글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친숙해 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 잘난 척만 했어, 나도 원래 안 그런데 생긴 대로 보여주는 게 맞지. 사람이 어떻게 만날 도덕적으로 옳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빼기 시작했는데, 그게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큰 자유를 준 것 같아요.”(『작가 공지영』, 『인물과사상』, 인물과 사상사, 2008, 20~21쪽)

에 김인숙은 성적 육체와 욕망 그리고 퇴폐적 열정을 가시화함으로써 성스러움에 대한 압력에 반발한다.

그러나 두 작가의 문학은 성숙의 이분법에 갇힌 불행한 시대 속에서 정치적 주체가 되고자 했던 80년 여성 세대들의 곤경뿐만 아니라, 이들이 여전히 그러한 시대의 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의 문학은 정치적 주체를 획득하는 순간 욕망이 버려지고, 욕망을 말하는 순간 정치가 실종되는 이 악무한의 모순이 해결될 계기를 찾기가 그다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탓에 이들은 여전히 기억에 붙들려 청춘의 시절을 재체험한다. 욕망과 회한, 과거와 미래, 애도와 멜랑콜리 등이 담긴 여성 후일담은 386 세대들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재현의 양식인지도 모른다.

앞서 말했듯이 여성 386들은 본격적으로 정치의 세계에 입문함으로써 자기 교양화를 시도한 여성 지식인 집단 혹은 정치적으로 각성된 최초의 여성 세대일 뿐만 아니라, 90년대 이후의 한국문학의 흐름을 주도한 이름이기도 하다. 여성 386 작가들은 한국문학의 거대한 전환의 증거로서, 사회와 개인, 정치와 일상, 의식과 무의식 등 90년대 문학의 전 시대 문학과 의 중층적 절합점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386 세대의 후일담 소설은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 채, 80년대 문학과 90년대 문학이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80년대와 90년대는 남성과 여성 혹은 정치와 욕망의 이질적인 대립의 구조로 도식화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 혹은 여성 작가는 해방의 증거이거나 탈역사성의 증거로 제멋대로 규정되었다. 여성 후일담 소설은 비록 80년대에 대한 비판적 소환임이 분명하지만, 여성 혹은 여성문학이 과거에 대한 청산 혹은 대립으로만 규정될 수 없다. 386 세대의 후일담 소설에 대한 적극적인 규명은 90년대 이후의 문학에 대한 온전한 해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공지영, 『인간에 대한 예의』, 창비, 1994.
 _____, 『고등어』, 웅진, 1994.
 _____, 『즐거운 나의 집』, 푸른숲, 2007.
 김인숙, 『유리구두』, 창비, 1998.
 _____, 『꽃의 기억』, 문학동네, 1999.
 _____, 『그 여자의 자서전』, 창비, 2005.

2. 단행본

- 김인숙, 「추억일 수 없는 현재」,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95, 169~175쪽.
 김 원,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1980년대 한국 대학생의 하위문화와 대중 정치』, 이후, 1999, 12쪽.
 김주현, 「의거와 혁명 사이, 잊혀진 여성의 서사들」, 『제3회 여성주의 인문학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4·19 혁명과 여성』, 한국여성문학회 외, 2010. 4. 17, 35~49쪽.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17~50쪽.
 이희영, 「한국 80년대 세대의 초상화: 독일 68세대와의 비교」, 『1980년대, 혁명의 시대』, 이해영 저, 새로운 세상, 1999.
 신진욱, 「사회운동의 연대 형성과 프레이밍 과정에서 도덕 감정의 역할」, 『상징에서 동원으로』, 정철희 외, 이학사, 2007, 57~110쪽.
 전인권, 『남자의 탄생』, 푸른숲, 2003.
 전희경, 「여성이 운동을 한다는 것은?」,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2-학생운동의 감추어진 일상문화』, 이재원 외 지음, 이후, 1998, 95~107쪽.
 정문순, 「통속과 자기연민, 미성숙한 자아: 조숙한 여자아이 수준의 인식에 머무르는 대한민국 여성작가」, 『한겨레21』, 한겨레신문사, 2007. 4. 24.
 지승호, 「작가 공지영」, 『인물과사상』, 인물과 사상사, 2008, 20~21쪽.
 진은영, 「감각적인 것의 분배: 2000년대의 시에 대하여」, 『창작과비평』, 창비,

2008. 12, 69쪽.

진정, 김명희, 조두현 외, 『386세대, 그 빛과 그늘』, 진정, 김명희, 조두현 외,
문학사상사, 2003.

프랑코 모레티, 성은애 역, 『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Abstract

Title: Reminiscences and holy/ snobbish rite of passages of 386 generation women

Kim, Eun-ha

When we say that growth is a process of self-formation that enables individual's sociality and liberal form of expression, it is evident that 386 generation women are cultured subjects that attempted mature rite of passages as autonomous objects away from the norm of gender or category of women or a group of women. The reminiscent novels of women 386 generation are controversial works that show the process in which women are awakened to sex after the revolution was frustrated.

It is an aspect of gendered memory with the form of recollection not a simple regression on the past. In this process, the political philosophy of 386 generation is kept in an interrogation built on the robust dichotomy on the world such as men and women, society and women,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education and desire, reason and emotion, subject and object, mind and body, abstinence and squandering, center and periphery, square and secret room etc. Reminiscences of women 386 are more likely to have anatomical nature rather than reminisce about the time of the revolution emotionally.

Especially this study noted that very heterogeneous and similar aspects are found in the works of Gong, Ji-young and Kim, In-sook rated as representative progressive writers or 386 women writers

These are the heterogeneous attitudes on 'snobbery'. The novels of Gong, Ji-young show an extreme complex on snobbery or envy for holiness and Kim, In-sook paradoxically shows fear and victim mentality on holiness through hysterical enthusiasm about the mundane things.

However, the reminiscent novels of the two writers show victim mentality

of those who were oppressed in the pressure on the holiness. Reminiscence of Gong, Ji-young has the narcissistic intention to make history as their own memories by giving brilliance of genuineness and sincerity to 386 generation. Here, aspiration for the historic center is underlain. The literature of Gong, Ji-young is the peripheral writing eager for center. On the other hand, Kim, In-sook shows decadent passion that reveals and attacks hypocrisy and oppression of the revolution through a person who lost primitive self or felt oppressed by the desire while getting through 1980s and recollects the desire suppressed by 1980s.

Key words : Reminiscences, rite of passages, holy, snobbish, 386 generation, women writers, gender, women literature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7일부터 23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6일에 게재 확정되었음.